kt 노동조합

2016 담대한 도전, 희망은 결실로! 결실은 현실로!

조합원에 대한 약속과 책임을 엄중한 이정표 삼아
희망과 결실이 찬란히 꽃피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강남무선운용센터지부 정화진

올해는 92년 생인 제가 팀으로 온 첫 해이기도 합니다. 원숭이의 기운을 받아 2016년을 저의 해로 만들어 보려 합니다. 다재다능하고 활기찬 원숭이처럼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강동에 그 활발한 친구 있잖아!"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런 신입이 되고 싶습니다. 신입이라 사내 복지 시스템과 혜택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KT 노동조합에서 안내 가이드북을 제작해 주면 저 같은 신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강남고객본부지부 김호현

올해는 꼭 장기가고 싶습니다! 또,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운동해서 반드시 몸짱이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겠습니다. 더불어 kt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및 감원에 휘청거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분당지부 정상채

올해는 다이어트로 꼭 허리를 2인치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딸, 밥 잘 먹고 건강하자! 2016년도 조합원들의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용안정과 유언비어가 없는 즐거운 일터가 되는 데에 노동조합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수도권강북고객본부지부 김형미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며 많이 웃을 수 있기를 꿈꿔 봅니다. 병(丙)은 적극적이고 활기찬, 새로운 도전과 창조를 의미하고 신(申)은 새롭게 개혁할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130년! KT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GiGATopia를 현실로 이루어 가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조합원 모두 에너지 충전 음료 한 잔 드립니다!

광진지부 강정아

꿈! 희망! 가능성! 자신감!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건강, 한 달에 한번은 문화생활도 꼭 가져보려 합니다. 회사와 조합원들과 소통하며 2016년 모두 함께 발전해 가는 노동조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주지부 김철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2016년 한해도 조합원들의 곁에서 함께 호흡하는 KT 노동조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KT노동조합 파이팅!

원주지부 이인범

당신이 흘린 하루하루의 땀방울 365개가 모여서 한 해를 이루었습니다. 지난 한해 수고한 KT노동조합에 박수를 보냅니다. 올 한해도 조합원들을 위해 힘써 주세요.

동두천지부 곽중길

예쁜 딸과 아내의 건강과 행복, 좀더 유머 있게 현장에 임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 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이 올해는 조합원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현장 방문도 많이 해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KT조합원 모두 행복한 원숭이 해 되세요!

달서지부 이종석

올해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식견을 넓히고자, 가까운 중국과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간단한 생활회화를 자신 있게 구사할 만큼의 외국어 실력도 다지겠습니다. 그간 KT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복지분야에서 많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의료비 혜택으로 가계부담금이 경감되고, 자기계발비 활용으로 여가활동이 늘어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어 기쁘기도 합니다. 다만 대학학자금 폐지처럼 더 이상 후퇴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대구지부 강효동

2016년에는 현재 업무에서 보람을 느끼며 동료들과 믿고 의지하고 건강하게 보내고 싶은 소박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고 마음의 상처 없이 사랑이 넘치기를 또한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6년도 치열한 경쟁이 지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 조합원들이 바라는 바를 이뤄내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평창지부 김동규

먼저 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생활, 그리고 자아발전을 위해 자격증 한가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철저한 건강관리와 사명감으로 회사와 가정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KT노동조합이 든든한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쭈—욱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전북유선운용센터지부 윤일영

지속되어온 구조조정으로 인해 현장의 일터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지난해였습니다. 일손 부족이란 명분을 내세울 수도 없는 현실에 옛 선배님들이 일궈낸 kt네트워크의 한 축을 최고의 품질개선으로 보답하기엔 역부족이겠지만, 2016년 최선을 다해 최고의 기량과 노하우를 습득해 더 나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즐겁고 행복한 KT를 만들기 위해 모든 조합원들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유선운용센터지부 장세경

2년전 동료들의 특별 명퇴로 인해 받은 상처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은 듯 합니다하지만 커다란 변화로 인해 남아있는 조합원이 안고 가야 하는 고충을 KT노동조합이 헤아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올해는 조합원에게 안정된 회사생활과 복지개선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심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6년은 즐거운 일들로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유선운용센터지부 장선득

어느 해보다 마음속 깊이 희망이 가득하고 무거웠던 마음의 짐도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회사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는가'보다 '내가 회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모든 생활이 만족스럽지만은 않겠지만 kt는 나를 위한 보호막이라 생각하니 뿌듯함이 밀려 옵니다. 각종 인사, 복지, 제도개선 등 조합원들의 참뜻이 헤아려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구엔지니어링센터지부 김은태

새해는 무엇보다 당뇨와 심장질환 치료 중인 부모님의 건강이 좋아지길 바라고, 술과 담배를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 5kg 체중감량에 도전하겠습니다. 선배들의 명퇴 이후 늘어난 업무량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동료간 부족한 여유시간을 위해 신규인력도 우선배치 충원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금년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들을 위해 학자금 부활이 꼭 관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남엔지니어링센터지부 안병찬

가족과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한해 그리고, 항상 옆에서 일하지만 소중함을 몰랐던 동료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동조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인천유선운용센터지부 안근석

원숭이해에는 가족과 모든 동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좀더 가까이서 조합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큰형님 같은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인천지부 전길상

2016년은 가족들이 보다 건강하고 둘째가 태어나 더욱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스스로의 능력을 좀더 갈고 닦아 인정받는 조합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주네트워크운용센터지부 김형민

새해에는 작은 소망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한 해이길 바라며, 스트레스와 고용불안, 현장의 불편사항이 없는 안정되고 발전하는 KT, 끊임없이 소통하는 KT,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KT가 되었으면 합니다. KT노동조합 파이팅!

네트워크관제센터지부 황지영

병신년에는 잔나비띠의 기질처럼 여유로움과 긍정의 힘으로 밝은 에너지만 뿜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들이 즐겁고 신나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일한만큼의 성과가 좀더 골고루 나누어 질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KT노동조합이 선도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Infra연구소지부 장호준

병신년 새해 모든 조합원들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첫 돌을 앞 둔 제 둘째부터 구순의 외할머님까지 온 가족이 큰 탈 없이 지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도 가족들이 건강하고, 금연과 다이어트에도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매년 시작과 실패를 반복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실패하더라도 내일 다시 시작한다는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노동조합이 좀 더 가까이 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소규모 그룹 단위 이벤트로 좀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유선운용센터지부 오현걸

붉게 타오르는 새해 첫 해돋이처럼 2016년 열정을 가지고 더 좋은 꿈을 펼쳐봅시다. 늘 좋을 수 만은 없겠지만 그래도 힘있는 노동조합이 되어 조합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함께 상생하는 kt노동조합으로 거듭 나길 바랍니다.

호남엔지니어링센터지부 이운성

지금 이순간 최대한 충실히! 올해의 각오는 이것입니다. 항상 조합원을 고객처럼 생각하는 KT노동조합이 되어주세요.

대전유선운용센터지부 김미소

입사해서 느껴본 KT는 정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자랑스런 회사, 선배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또한 내 꿈을 펼치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원숭이띠 한해가 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와 문화정책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고객본부지부 이대림

좋은 직원들과 함께 근무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거 같습니다. 2016년 병신년 원숭이띠 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고 싶고, 사랑하는 우리가족도 지금보다 훨씬 더 화목하고 건강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국제센터지부 권용선

새해는 가족 모두 건강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또 KT가 신 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잘 되고, 기존 사업들의 점유율이 높아져 매출이 쑥쑥 늘고, 젊은 직원들도 많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같이 고민하면서 때로는 사측과 더 과감히 맞설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어 주길 바래봅니다.

제주지부 서범주

올해는 월급도 더 많이 오르고, 복지도 더 향상되고, 웃음도 더 많아지는 즐거운 KT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주고객본부지부 김미경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최고랍니다. 병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 동료 얼굴 한번 보며 정다운 인사 나눌 수 있는 여유도 부리며 살자구요. 사랑합니다.

담양지부 조상우

올해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묵묵하고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고용불안 없이 동료와 생활할 수 있도록 KT노동조합이 새희망의 디딤돌이 되어주세요.

김해지부 최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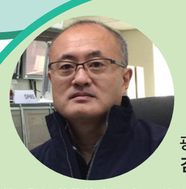
올해는 전국투어일주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더 나은 삶을 통해 직장 동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자녀 학자금 제도가 부활 했으면 합니다.

충북고객본부지부 육현우

2015년 양띠 해의 시작이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고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kt의 지속적인 번창을 기원하며 특히 얼마 전 GiGA 100만 달성에 이은 200만, 300만 달성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충북고객본부지부 이석규

새해에는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도전의식을 키우겠다는 당찬 포부를 전합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고, 끝이 좋아야 시작도 빛난다.'라는 말처럼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2016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유선운용센터지부 김동훈

새해에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생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T 노동조합이 소통과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북고객본부지부 박명현

올해는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제 자신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짐 로저스는 '늘 꿈을 갖고 네 인생을 살아라'고 했습니다. 꿈을 그리는 자는 그 꿈을 닮아가듯 늘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사람이 되어 kt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홍성지부 길정배

샘물같고 가족 같은 조합에 새해의 소망을 더하자면 '우리 모두가 그 어떠한 것보다 존중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입니다. 존중이라는 씨앗이 모두의 마음에 자리 잡으며 삶의 과정이 때론 힘들고 고단하다고 하더라도 주변을 돌아보며 잘 헤쳐 나갈 것입니다. 2016년 새해 "존중" 이라는 단어를 외치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